

# 새싹 편지

2011. 5월호



## Woosong News


- 3학년 블랙나이트 공연
- 체육대회
- 1학년 어린이집 견학
- 2학년 부전공

## Our Story

- 김진영 교수님 인터뷰
- 선배님 궁금해요:  
    답변 Part. 2



### 법원어린이집 블랙나이트 공연

 2011년 5월 4일 수요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아문학연구회 동아리 학생들이 대전고등법원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유아들을 위한 블랙나이트 공연과 빨간 모자 그림자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의 준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준비실로 사용하는 방의 창문을 검정 전지로 막아서 빛을 차단하고 유아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공연 안에 교육방법 및 교수공학, 유아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다양한 과목과 연관이 되어있어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학술제나 다문화 폐회식 때 했던 공연들과는 달리,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교실에 무대를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유아들과 가까이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 모두가 하나 되는 체육대회

 2011년 5월 12일 이틀간의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체육대회는 우송대의 마스코트 '우송이'의 등장과 각 학과의 마스코트들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피구와 농구, 5인6각,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도중 비가 와서 응원할 때 힘들었지만 추억이 되었습니다. 5월 13일 체육대회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솔브릿지 대학과 축구시합을 시작으로 줄넘기, 씨름, 줄다리기, 마지막으로 제주 역시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OX퀴즈를 통해 학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로 인해 선배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더 많은 교류가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신나고 즐거웠던 체육대회였습니다.





### 1학년 중앙유치원 견학

4월 27일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선화동에 위치한 중앙유치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유치원은 현재 국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도교육감에게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전문원장, 원감을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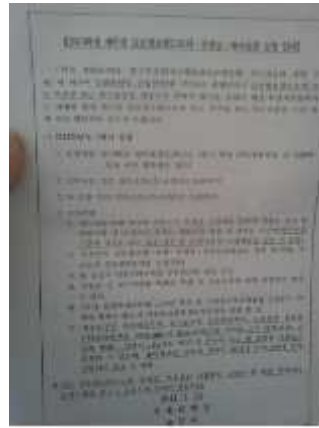


한 장애유아의 취학 기회 확대 등 유치원 공교육화 체제전환에 대비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건물로 5학급 이상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인 중앙유치원은 만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 1개, 만 4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 1개,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 2개, 종일제, 특수반으로 구성되어 총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개론' 과목을 배우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번 견학이 실제 교실구성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2학년 부전공 선택

지난 4월 14일 10학번 학생에게 재학생 글로벌브랜드트랙, 부전공, 복수전공 신청 안내문이 공지되었습니다. 학칙



30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신입생(현2학년)은 졸업 전까지 글로벌브랜드트랙 또는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신청기간은 지난 4.19~20일까지이며 본신청기간은 4.27~4.29일이

었습니다.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보건복지대학의 스포츠건강관리학부의 부전공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브랜드트랙, 전공, 복수전공 과정은 이번 여름학기부터 시행되며 각 학기마다 3학점씩 이수하여 21학점을 의무 이수하게 됩니다.



### 선배님 궁금해요 : 답변 part. 2

1. 주로 공강 시간에 뭐하시나요?  
- 집에서 부족한 잠을 더 잔다거나, 집이 먼 사람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 대부분 공강시간에 과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러 카페를 가기도 하지. 또,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정관에 가기도 해.
2. 선배님들은 해외 연수 경험이 있으신가요?  
- 작년에 우리 과에서는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왔어. 학교에서 방학동안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꼭 가보는 게 좋을 꺼야.
3. 동아리 활동할 때 과동아리랑 학교 동아리 다 할 수 있나요?  
- 학교동아리와 과동아리 둘 다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공부할 양도 많고 시간적 여유를 생각하면 한 가지만 하는 걸 추천할게.
4. 우송대학교는 조기졸업은 가능한가요?  
- 우리학교는 작년 2010년부터 4학기제를 실시했는데, 4학기제는 일 년을 4번의 학기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을 말해. 이 4학기제의 취지는 좀 더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3.5년 만에 졸업을 하길 바라고, 사회에 좀 더 빨리 진출해서 빠른 취업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거 같아. 우리는 4학기제를 함으로써 조기졸업은 당연한 거지!



## 유아교육과 김진영 교수님 인터뷰

오늘은 유아교육과의 교직을 담당하고 계신 김진영 교수님을 인터뷰 했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선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작년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철학강의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학생들이 눈빛이 순수해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만, 특히 1학년 학생들의 눈빛이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분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었고, 가정관 옆의 아름드리나무들이 앞으로 사계절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2. 다른 과 학생들과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차이점, 유아교육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항상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줘서 좋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의심 없이 따라와 주는 것에 고마워요, 하지만 지성인이 갖춰야 할 비판의식이나 도전의식이 부족해 보여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순수함에 열정을 더해서 조금만 더 적극성을 보여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 대학생 때 고이원에 봉사활동을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도 전업주부를 하며 종교단체에 속해 봉사활동을 다녔을 것 같아요.

4. 교수생활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껴왔던 일이 있으신가요?

- 다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장문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감동을 받았고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때의 감동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또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듯이 학생들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자신이 소원하던 것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죠.

5.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해주세요.

- “교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업이다.” 내가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문구예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명심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들에 대해 극진한 배려를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유치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교과내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대답해 주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교육자로서 철학과 열정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육과 학생과 나는 가르치는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교사는 항상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순수함에 열정을 담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올 졸업생 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사를 통과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교직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주어 일조를 하고 싶어요.

교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엔 카리스마가 넘치시지만, 인터뷰를 할 때엔 상냥한 말씨에 또 다시 한 번 교수님의 매력에 빠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진영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정적인 수업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 유아 상식

■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물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 하지만 맛벌이이거나 몸이 안 좋아 대리양육자가 육아를 맡아야 할 경우 아이에게 괜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어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거나 일에도 집중하지 못해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하는 엄마의 아이들이 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한다.

■ 아이 때 찐 살은 다 빠진다.

어른이 살찌는 것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포의 수는 어른이 되어도 줄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 때 비만이었던 아이가 크면 살이 빠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이 빠졌어도 지방세포 수가 늘어난 아이는 살이 잘 찌고, 찐 살을 빼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 하지만 아이의 몸무게를 함부로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때는 몸과 두뇌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때이기 때문이다.

##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포크, 버선, 고추, 아이스크림, 펜촉, 촛불

## 4단 만화



<햇볕을 쬐다>

By. 도바기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김민아 \* 이정은 \* 조아름